

## 일부 여자대학생들의 음주실태와 관련요인

곽정옥\* · 김영복\*\*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교육과, \*\*서남대학교 건강관리과

### A Survey on Drinking Status and Related Factors of Female Students in Women's University in Seoul

Jung Ok Kwak, Young Bok Kim\*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Senam University\*

#### ABSTRACT

In order to find associated factors with alcohol drinking among female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of 1,073 female students of a women's university in Seoul from the 22nd of May to the 18th of June, 1995.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1. Among 1,073 respondents, 13.8% of them were regular drinkers, 71.8% of them were social drinkers. the alcohol drinking rate of female students had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field of study. The time of their first drink varied: 2. 14.8% in junior high school, 30.2% in high school, 4.7% after high school, and 49.4% in college. 3. The major motivation to start drinking was 'social meeting' (45.4%), 'curiosity' (12.6%), and 'releasing stress' (5.5%). 4. The favorite alcohol of drinkers was beer (62.2%), Soju (25.6%), whisky (1.4%), Makkori (0.2%). 5. The frequency of alcohol drinking was 36.5% once a week, 32.8% 2~3 times per month. 15.7% more than twice a week and 8.4% once a month. 6. Among the respondents, 73.4% of them wanted a health education program about drinking. 7. The drinking of the father, mother, brother, sister, boy friend, girl friend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with the drinking of the respondents. 8. Meal regularity, balanced diet, smoking, and knowledge of alcohol drinking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with the drinking of the respondents. 9.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related factors for alcohol drinking were the following: health status, balanced diet, father's drinking, sister's drinking, boy friend's drinking, and smoking.

#### I. 서 론

인류 역사 이래로 음주는 인간에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한 요인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적당한 음주는 기분을 일시적으로 좋게 하는 등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며, 자극제로서, 안정제로서, 대인관계를 원활히 해주는 매개체로서, 또한 최근에 와서는 관상성 심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윤호 등, 1981; 김선환 등, 1982; Jacqueson, A. 등, 1983; Dai, W.S. 등, 1985). 그러나 잘못 마시거나 너무 많이 자주 마시는 경우에는 빈곤과 가정의 파탄, 사회적 갈등, 생활능력의 상실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정규철, 1986; 권이혁, 1985; 남철현, 1992), 행동장애(Yates W.R., 1987), 정신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도 이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병철 등, 1991). 뿐만

아니라 알콜은 순환기 질환(Power, J.S., 1984; Sherin, K., 1982), 간질환(Gordon, T., 1987), 위상(Harvard, J., 1986; Roquers, P.D., 1987) 등의 급만성 질환의 위험인자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알콜로 기인한 사망이 연간 약 15만명 정도나 된다고 하며, 여기에는 만성 간질환, 교통사고, 자살, 타살 등에 의한 사망과 알콜과 연관된 추락사, 익사, 화재사 등이 포함된다(송건용, 1993).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술을 즐겨 마시는 음주자는 약 1/3에 해당하는 3천 4백만명이나 되며 또한 1회 음주시 소주 반병을 마신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음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얼마나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지 추정해 볼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한 대책과 예방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콜에 대해 범국가적으로 정책을 마련하여 임상인구(clinical population)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general population)을 대상으로 공중보건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왔으나(김광기, 1995)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음주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사회가 개방화되고 핵가족화 및 가치 체계의 변화로 인해 그동안 전통적으로 금기시 해오던 여성의 음주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음주 및 그 병폐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의 음주는 남성들 보다 술로 인한 간 파괴속도가 무척 빠르며 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동안의 음주는 유산, 사산, 미숙아, 기형아, 정신박약아 등을 초래하는 태아성 알콜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송건용, 1993) 또한 여성 음주자는 여성의 독특한 성역할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성 음주에 관해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동안 음주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연구대상에 있어서 주로 남자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남중락 등, 1996), 간질환 환자

(구보경 등, 1997), 산업장 근로자(이명선, 1995; 하은희 등, 1996), 성인남자(박정일 등, 1992), 습관성 음주자 및 알콜중독자(이길홍 등, 1973; 이길홍 등, 1987)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별로 없으며, 주세에 있어서도 중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실태(김숙경, 1992; 길은미, 1994; 진희숙, 1994), 알콜 섭취와 혈중지질과의 관계(박정일, 1992), 음주와 영양과의 관계(이선희 등, 1991; 구보경 등, 1997), 음주자의 건강상태(김미현 1989), 음주와 비행과의 관련성(박두병, 1984; 이근철 등, 1987) 등의 연구가 시행되었을 뿐 음주의 동기과 알콜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지식,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음주행태, 알콜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지식도 등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 II. 조사방법

###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조사는 서울시내 소재 1개 여자종합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61개 학과를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 의학의 4개 계열로 구분하여 총 9개 학과의 재학생 1600명을 무작위 추출하였으나 학과 사정에 따라 조사가 불가능 하였던 학생들을 제외한 12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1995년 5월 22일에서 6월 18일까지였다.

###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기존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음주 여부와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음주행태, 알콜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지식, 가족 및 친구의 음주여부, 건강관련행위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방법은 해당학과 교수 및 조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 및 조사실시 요령을 충분히 설명한 후 본연구자, 해당학과 교수, 조교를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설문지에 자기기입 방식으로 응답케 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40명의 대학생을 대

**Table 1.** Classification criteria on the frequency of alcohol drinking by DSM-II

Classification of frequency of alcohol intoxication	
A.	Never Drinking
B.	Social Drinking : less than 4 times a year
C.	Current Regular Drinking or Alcoholics : more than 4 times a years

상으로 사전조사를 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사용하였으며, 무응답 및 응답 내용이 불충실한 127명을 제외한 1,073 명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습관성 음주지침(DSMII 1968)에 의해 과음후 취하는 빈도가 매년 4회 이상인 경우를 '상습음주자'(Current Regular Drinker 혹은 Alcoholics : 이하 CRD로 약칭함), 현재 음주 경험은 있으나 과음후 취하는 빈도가 매년 4회 이내인 경우를 '비상습 음주자'(Social Drinker),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를 '비음주자(Never Drinker)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Table 1).

측정된 자료는 data base 자료화하여 PC-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음주여부와 음주양태를 빈도와 백분율로 파악하였고, 사회인구학적 특성, 음주의 유해성에 관한 지식, 건강관련행위에 따른 음주 유무의 차이를 X<sup>2</sup>-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음주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음주 유무(상습음주와 비상습 음주를 합하여 유로 했음)를 종속 변수로 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 및 친구의 음주유무, 알콜 유해성에 관한 지식도, 건강관련행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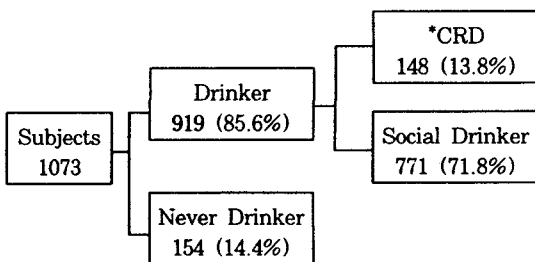
### III. 조사성적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분포

조사대상자의 분포는 Table 2와 같다 학년별로는 1학년 273명(25.5%), 2학년 350명(32.6%), 3학년(19.2%), 4학년(22.7%)이었으며,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254명(23.7%), 자연계열 321명(29.9%), 예체능계열 236명(22.0%), 의학계열 262명(24.4%)이었다.

#### 2. 조사대상자의 음주율

본 조사대상자 1,073명 중 음주자는 919명으로 85.6%의 음주율을 나타내었고, 이 중 과음 후 취하는 빈도가 매년 4회 이상인 상습 음주자는 148명(13.8%), 비상습음주자는 771명(71.8%)이었으며 또한 음주를 전혀하지 않는 비음주자는 154명(14.4%)이었다(Fig. 1). 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85.6%의 음주율은 이병철 등이 1991년 조사한 여대생 음주율 81.9%보다 다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199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인 20~59세 전국여성의 음주율 22.6%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여대생이라는 집단이 여성 중에서도 특수집단으로 여대생의 음주에 대해 사회가 관용적인 결과에 기인하



\*CRD: Current Regular Drinker  
**Fig. 1.** Drinking rate of subjects.

**Table 2.**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major/grade	1	2	3	4	계
Liberal Arts	66 (24.2)	99 (26.3)	38 (18.4)	51 (20.9)	254 (23.7)
Natural Science	121 (44.3)	112 (32.0)	22 (10.7)	66 (27.0)	321 (29.9)
Arts & Physical Education	38 (13.9)	71 (20.3)	72 (34.9)	55 (22.5)	236 (22.0)
Medical Science	48 (17.6)	68 (19.4)	74 (35.9)	72 (29.5)	262 (24.4)
계	273 (25.5)	350 (32.6)	206 (19.2)	244 (22.7)	1073 (100.0)

Table 3. Alcohol drinking status by grade

unit : person (%)

grade	Drinker			Never Drinker	Total	X <sup>2</sup>
	CRD	Social Drinker	Subtotal			
Freshman	39 (14.3)	199 (72.9)	238(87.2)	35 (12.8)	273 (100.0)	4.523
Sophomore	53 (15.1)	239 (68.3)	292(83.4)	58 (16.6)	350 (100.0)	
Junior	26 (12.6)	155 (75.2)	181(87.8)	25 (12.2)	206 (100.0)	
Senior	30 (12.3)	178 (72.9)	208(85.2)	36 (14.8)	244 (100.0)	
계	148 (13.8)	771 (71.8)	919 (85.6)	154 (14.4)	1073 (100.0)	

\*p&lt;0.01, \*\*p&lt;0.001

지 않나 생각된다.

## 1) 학년별 음주율

학년별 음주율을 보면 3학년이 87.8%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이 1학년(87.2%), 4학년(85.2%), 2학년(83.4%)의 순이었으며, 상습음주율은 2학년이 15.1%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이 1학년(14.3%), 3학년(12.6%), 4학년(12.3%)의 순이었다(Table 3).

## 2) 전공계열별 음주율

전공계열별 음주율은 인문사회계열이 8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예체능계열(87.3%), 자연계열(86.9%), 의학계열(79.4%)의 순이었으며, 상습음주자는 예체능계열이 21.2%로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계열(16.1%), 자연계열(11.2%), 의학계열(8.0%)의 순으로 전공계열별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이것은 아마 전공 지식 습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3. 음주양태

음주자들의 음주양태는 Table 5와 같다. 최초 음주 시기는 대학 입학후가 49.4%로 가장 많았으나 고등

학교 시절이 30.2%, 중학교 시절이 14.8%, 재수생 시절이 4.7%로서 59.7%가 이미 대학에 들어오기전 음주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문화체육부의 조사에서 초등학교생의 약 30%, 중학생의 약 39%, 고등학생의 약 73%가 음주를 한 경험이 있다는 보고와 비교하면 본 조사 대상자들의 최초 음주시기가 다소 늦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여학생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 음주연령이 해를 거듭할수록 연소해진다는 점을 감안할때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보건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겠다.

음주하게 된 동기로는 사교상이 4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호기심(12.6%), 스트레스 해소(5.5%)의 순으로 이것은 이병철 등(1991)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음주는 대체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음주 횟수는 1주에 1회정도가 3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1달에 2~3회(32.8%), 1주에 2회 이상(15.7%), 1달에 1회 이하(8.4%)의 순이었다. 그러나 1주에 2회 이상의 음주자들은 음주 행위 자체가 습관

Table 4. Alcohol drinking status by major field

unit : person(%)

major field	Drinker			Never Drinker	Total	X <sup>2</sup>
	CRD	Social Drinker	Subtotal			
Liberal Arts	41(16.1)	185(72.8)	226(88.9)	28(11.1)	254(100.0)	29.960**
Natural Science	36(11.2)	243(75.7)	279(86.9)	42(13.1)	321(100.0)	
Arts & PE	50(21.2)	156(66.1)	206(87.3)	30(12.7)	236(100.0)	
Medical Science	21( 8.0)	187(71.4)	208(79.4)	54(20.6)	262(100.0)	
계	148(13.8)	771(71.8)	919(85.6)	154(14.4)	1073(100.0)	

\*p&lt;0.01, \*\*p&lt;0.001

Arts &amp; PE : Arts and Physical Education

**Table 5.** Alcohol drinking patterns of drinkers

unit : person (%)

pattern	Liberal Arts	Natural Science	Arts & Physical Education	Medical Science	Total	X <sup>2</sup>
<b>Onset of drinking</b>						
middle school	33 (14.6)	48 (17.2)	24 (11.6)	31 (14.9)	136 (14.8)	53.364**
high school	69 (30.5)	81 (29.0)	89 (43.2)	39 (18.7)	278 (30.2)	
after high school	12 (5.4)	3 (1.1)	18 (8.8)	10 (4.8)	43 (4.7)	
college	109 (48.2)	144 (51.6)	74 (35.9)	127 (61.1)	454 (49.4)	
no answer	3 (1.3)	3 (1.1)	1 (0.5)	1 (0.5)	8 (0.9)	
<b>Motivation for first drinking</b>						
friendship	98 (43.4)	127 (45.5)	85 (41.3)	107 (51.4)	417 (45.4)	14.719
curiosity	35 (15.5)	40 (14.3)	19 (9.2)	22 (10.6)	116 (12.6)	
relieve stress	13 (5.7)	13 (4.7)	18 (8.7)	7 (3.4)	51 (5.5)	
others	80 (35.4)	99 (35.5)	84 (40.8)	72 (34.6)	335 (36.5)	
<b>Frequency of drinking</b>						
below 1/month	14 (6.2)	18 (6.4)	15 (7.3)	30 (14.4)	77 (8.4)	47.706**
2-3/month	75 (33.2)	77 (27.6)	64 (31.1)	85 (40.9)	301 (32.8)	
once a week	79 (34.9)	123 (44.1)	66 (32.0)	68 (32.7)	336 (36.5)	
above 2/week	42 (18.6)	46 (16.5)	39 (18.9)	17 (8.2)	144 (15.7)	
others	14 (6.2)	14 (5.0)	22 (10.7)	8 (3.8)	58 (6.3)	
no answer	2 (0.9)	1 (0.4)	0 (0.0)	0 (0.0)	3 (0.3)	
<b>Drinking company</b>						
girl friend	73 (32.3)	100 (35.8)	71 (34.5)	63 (30.1)	307 (33.4)	26.708**
boy friend	36 (15.9)	34 (12.2)	39 (18.9)	19 (9.1)	128 (13.9)	
senior or junior	61 (27.0)	97 (34.8)	58 (28.2)	87 (41.8)	303 (33.0)	
family	9 (4.0)	9 (3.2)	3 (1.0)	4 (4.8)	30 (3.3)	
others	14 (6.2)	17 (6.1)	26 (12.6)	27 (13.3)	84 (9.1)	
no answer	33 (14.6)	22 (7.9)	10 (4.8)	2 (0.9)	67 (7.3)	
<b>The reason for current drinking</b>						
social meeting	149 (65.9)	198 (70.9)	137 (66.5)	142 (68.3)	626 (68.1)	11.869
relieve stress	25 (11.1)	25 (9.0)	26 (12.6)	20 (9.6)	96 (10.4)	
eagerness for drinking	26 (11.5)	38 (13.6)	25 (12.1)	24 (11.5)	113 (12.3)	
habitually	4 (1.8)	2 (0.7)	2 (1.0)	6 (2.9)	14 (1.6)	
others	22 (9.7)	16 (5.8)	16 (7.8)	16 (7.7)	70 (7.6)	
<b>Favorite type of alcohol</b>						
Soju	53 (23.4)	75 (26.9)	64 (31.1)	43 (20.6)	235 (25.6)	8.237
beer	143 (63.2)	171 (61.3)	106 (51.4)	152 (73.1)	572 (62.2)	
whisky	1 (0.4)	0 (0.0)	12 (5.8)	0 (0.0)	13 (1.4)	
Makguli	1 (0.4)	0 (0.0)	1 (0.5)	0 (0.0)	2 (0.2)	
others	3 (1.3)	4 (1.4)	7 (3.4)	5 (2.4)	19 (2.1)	
no answer	25 (11.0)	29 (10.4)	16 (7.8)	8 (3.8)	70 (8.5)	
<b>Frequency of drunkenness</b>						
above 1/week	3 (1.3)	2 (0.7)	8 (3.9)	1 (0.5)	14 (1.5)	33.566
2-4/month	25 (11.1)	20 (7.2)	29 (14.1)	10 (4.8)	84 (9.2)	
4-11/year	13 (5.7)	14 (5.0)	13 (6.3)	10 (4.8)	50 (5.4)	
below 4/year	67 (29.7)	79 (28.3)	69 (33.5)	57 (29.0)	272 (29.6)	
never	118 (52.2)	164 (58.8)	87 (42.2)	130 (60.0)	499 (54.3)	
<b>Total</b>	<b>226 (100.0)</b>	<b>279 (100.0)</b>	<b>206 (100.0)</b>	<b>208 (100.0)</b>	<b>919 (100.0)</b>	

\*p<0.01, \*\*p<0.001

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 해야 되리라고 본다.

또한 음주시 동반자로는 대부분이 여자친구(33.4%), 선후배(33.0%)라고 답하였으나 13.9%는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다고 답하였다.

현재 음주하는 이유는 사교상이라고 답한 학생이 68.1%로 대부분이었으나 술생각이 나서가 12.3%, 그냥 습관적으로 마신다고 답한 학생도 1.6%가 있어 이들이 알콜에 탐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섭취 알콜은 맥주, 소주, 막걸리, 약주의 순으로 막걸리, 약주는 감소 추세이고, 맥주, 양주는 증가 추세이며 소주는 소비량의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되었는데(국세청, 1992), 본 조사에서도 음주자들이 선호하는 주류는 맥주가 62.2%로 단연 으뜸이었고 다음이 소주(25.6%)였으며, 양주와 막걸리를 선호하는 학생이 각각 1.4%, 0.2%로 나타났다.

음주자의 만취횟수는 취한적이 없었다고 답한 학생이 54.3%, 년 4회 이하가 29.6%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취하도록 마시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주 1회 이상의 만취자가 1.5%로 나타! 이들이 알콜중독자로 진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하루바빠 이들로 하여금 알콜에 탐닉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보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학교보건교육을 통한 행동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 4. 음주관련요인

##### 1)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음주상태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우선 종교별 음주상태를 보면 기독교를 믿는 학생 중에는 23.9%가 비음주자였던 반면에 기타종교를 가진 학생에 있어서는 8.8%, 종교가 없는 학생에 있어서는 8.5%가 비음주자로 기독교를 믿는 학생일수록 음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중년층 남성을 대상으로 한 김미현(1989)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였다.

주거상황별로는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의 경우 15.2%가 비음주자였던 반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11.7%가 비음주자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음주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부모님의 교육 방식에 따른 차이를 보면 보수

적인 경우 17.3%가 비음주자였던 반면에 민주적인 경우는 13.8%, 방임적인 경우 8.2%가 비음주자로 나타나 보수적인 가정에서 민주적, 방임적 가정 보다 음주율이 낮게 나타나 이병철(1991)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역시 유의한 차는 아니었다.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들 중에는 상습음주자가 18.4%, 비상습음주자가 70.5%로 88.9%의 음주율을 보인 반면 이성친구가 없는 학생에 있어서는 상습음주자가 11.4%, 비상습음주자가 72.6%로 84.0%의 음주율을 보여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일수록 음주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남중락 등(1996)이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현재 음주자 중 '이성 친구에게 술을 먹고 싶은 충동을 가질 때가 있다'고 답한 학생이 38.7%를 보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경우 11.7%가 비음주자였던 반면에 불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에 있어서는 15.0%가 비음주자로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에 있어서 음주율이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아니었다(Table 6).

##### 2) 가족 및 친구의 음주 여부별 음주상태

가족 및 친구의 음주가 대상자의 음주 여부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하여 아버지, 어머니, 남자형제, 여자형제,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음주여부별로 음주상태를 비교하여 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성장기 동안 가족의 음주양상을 학습하여 음주습관이 쉽게 생길 수 있으며, 친구 또한 교제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모방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Table 7).

##### 3) 음주와 건강행위와의 관련성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학생에 있어서는 상습음주자가 11.0%, 비상습음주자가 72.5%, 비음주자가 16.5%인데 반해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학생들 중에는 상습음주자가 17.3%, 비상습음주자가 71.0%, 비음주자가 11.7%로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학생일수록 음주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균형식을 하는 학생에 있어서는 상습음주자가 9.1%, 비상습음주자가 70.4%로 79.5%의 음주율을 보인 반면 편식하는 학생에 있어서는 16.1%가 상습음주자, 72.6%가 비상습음주자로 84.7%의 음주율을 보여 편식하는 학생일수록 음주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Associ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lcohol drinking status unit : person (%)

	CRD	Social Drinker	Never Drinker	Total	X <sup>2</sup>
<b>Religion</b>					
christian	44 (11.0)	261 (65.1)	96 (23.9)	401 (100.0)	55.793**
other religion	33 (11.5)	228 (79.7)	25 (8.8)	286 (100.0)	
no religion	71 (18.4)	282 (73.1)	33 (8.5)	386 (100.0)	
<b>Living together with parents</b>					
yes	116 (14.3)	570 (70.5)	123 (15.2)	809 (100.0)	3.265
no	32 (12.1)	201 (76.2)	31 (11.7)	264 (100.0)	
<b>Parents' method of education</b>					
conservative	44 (14.9)	200 (67.8)	51 (17.3)	295 (100.0)	9.571
democratic	88 (12.5)	520 (73.7)	97 (13.8)	705 (100.0)	
noninterferent	16 (21.9)	51 (69.9)	6 (8.2)	73 (100.0)	
<b>Boy friend</b>					
have	68 (18.4)	260 (70.5)	41 (11.1)	369 (100.0)	7.804**
don't have	80 (11.4)	511 (72.6)	113 (16.0)	704 (100.0)	
<b>Health Status</b>					
healthy	57 (13.4)	320 (74.9)	50 (11.7)	427 (100.0)	4.691
ordinary	74 (13.9)	372 (69.8)	87 (16.3)	533 (100.0)	
unhealthy	17 (15.0)	79 (70.0)	17 (15.0)	113 (100.0)	
계	148 (13.8)	771 (71.8)	154 (14.4)	1073 (100.0)	

\*p<0.01, \*\*p<0.001

커피 음용과 음주와의 관련성 여부를 보면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는 학생 중 비음주자는 16.9%, 1~2잔을 마시는 경우 11.5%, 3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 13.9%가 비음주자로 커피 음용과 음주 유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과의 관련성 여부를 보면 현재 흡연을 하고있

는 학생 중 24.4%가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고, 73.1%가 비상습적으로 음주를 하며, 2.5%만이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데 반해 흡연 경험이 전혀없는 비흡연자 중에서는 10.2%가 상습음주, 72.4%가 비상습음주, 17.4%가 비음주자로 흡연을 하는 학생일수록 음주율이 높게 나타나 이것은 Oleckno 등(1990), Revicki 등

**Table 7.** Association between family member and friend who drinks with drinking status unit : person (%)

		CRD	Social Drinker	Never Drinker	Total	X <sup>2</sup>
Father	+	128 (15.0)	625 (73.4)	99 (11.6)	852 (100.0)	26.725**
	-	20 (8.6)	146 (66.4)	55 (25.0)	221 (100.0)	
Mother	+	78 (16.4)	357 (74.8)	42 (8.8)	477 (100.0)	23.577**
	-	70 (11.7)	414 (69.5)	112 (18.8)	596 (100.0)	
Brother	+	73 (15.2)	362 (75.1)	47 (9.7)	482 (100.0)	15.355**
	-	75 (12.7)	409 (69.2)	107 (18.1)	591 (100.0)	
Sister	+	61 (17.0)	271 (75.5)	27 (7.5)	359 (100.0)	22.535**
	-	87 (12.2)	500 (70.0)	127 (17.8)	714 (100.0)	
Boy friend	+	99 (17.8)	415 (74.6)	42 (7.6)	556 (100.0)	51.876**
	-	49 (9.5)	356 (68.9)	112 (21.6)	517 (100.0)	
Girl friend	+	120 (15.7)	572 (74.7)	74 (9.6)	766 (100.0)	50.829**
	-	28 (9.1)	199 (64.8)	80 (26.1)	307 (100.0)	

\*p<0.01, \*\*p<0.001

**Table 8.** Association with health-related behavior with alcohol drinking status unit : number (%)

health behavior	CRD	Social Drinker	Never Drinker	Total	X <sup>2</sup>
<b>Meal Regularity</b>					
regular	65 (11.0)	430 (72.5)	98 (16.5)	593 (100.0)	12.152*
irregular	83 (17.3)	341 (71.0)	56 (11.7)	480 (100.0)	
<b>Balanced Diet</b>					
balanced diet	32 (9.1)	247 (70.4)	72 (20.5)	351 (100.0)	22.224**
unbalanced diet	116 (16.1)	524 (72.6)	82 (11.3)	722 (100.0)	
<b>Use of Coffee</b>					
less than 1 cup	57 (39.9)	370 (48.0)	87 (56.5)	514 (47.9)	
1-2 cup	72 (46.8)	327 (42.4)	52 (33.8)	451 (42.0)	10.483
over 3 cup	19 (11.0)	74 (9.6)	15 (9.7)	108 (10.1)	
<b>Smoking Status</b>					
never smoking	79 (10.2)	563 (72.4)	136 (17.4)	778 (100.0)	
ex-smoking	50 (23.0)	151 (69.6)	16 (7.4)	217 (100.0)	54.463**
current smoking	19 (24.4)	57 (73.1)	2 (2.5)	78 (100.0)	
Total	148 (13.8)	771 (71.8)	154 (14.4)	1073 (100.0)	

\*p&lt;0.01. \*\*p&lt;0.001

(199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Table 8).

## 4) 알콜의 유해성에 관한 지식점수별 음주상태

지나친 음주를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인체 유해성에 관한 설문에 대한 응답률은 Table 9와 같다. 상습적인 과음이 알콜성 지방간과 간경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71.8%가, 위염, 신경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각각 66.6%, 60.1%가 알고 있었으나 구강암 및 식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은 다만 15.1%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임신시에 상습적 과음을 하게 되면 저출생아 또는 자연유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38.7%만이 바로 알고 있었으며 특히 상습음주자의 69.6%가 이러한 지식을 갖고있지 않아 이는 특히 앞으로 결혼을 눈앞에 둔 여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 보급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지식 문항을 문항당 1점씩으로 배점하여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비음주군, 음주군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때 지식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보건 지식 습득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건교육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Table 10).

음주의 유해성에 관한 지식 습득 경로는 신문, 잡지(33.9%), 라디오, TV(24.3%)가 전체의 58.2%로 반수 이상의 학생이 매스컴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학교 선생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 학생은 30.8%에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의 부재를 알 수 있었다(Table 11).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학교 보건법이 제정되어 학교보건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음주하는 학생들에게 음주에 대한 지도를

**Table 9.** Understanding rate on given 5 questions related to "Effects of drinking to health" unit : person (%)

knowledge item	CRD	Social Drinker	Never Drinker	Total
Neuropathy	72 (48.6)	469 (60.8)	104 (67.5)	645 (60.1)
Oral & Eesophageal Cancer	14 (9.5)	115 (14.9)	33 (21.4)	162 (15.1)
Gastritis	99 (66.9)	503 (65.2)	102 (66.2)	704 (65.6)
LBW & Natural Abortion	45 (30.4)	296 (38.4)*	74 (48.1)	415 (38.7)
AFL & ACL	95 (64.2)	561 (72.8)	114 (74.0)	770 (71.8)

LBW : Low Birth Weight, AFL &amp; ACL : Alcoholic Fatty Liver &amp; Alcoholic Livercirrhosis



**Table 10.** Knowledge score of respondents

score	CRD	Social Drinker	Never Drinker	Total	X <sup>2</sup>
below 1	48 (17.9)	186 (69.7)	33 (12.4)	267 (100.0)	13.980*
2-3	76 (13.5)	414 (73.7)	72 (12.8)	562 (100.0)	
over 4	24 (9.8)	171 (70.1)	49 (20.1)	244 (100.0)	
Total	148 (13.8)	771 (71.8)	154 (14.4)	1073 (100.0)	

\*p<0.01

**Table 11.** Information source for knowledge about effects of alcohol to health

unit : person (%)

inform source	CRD	Social Drinker	Never Drinker	Total	X <sup>2</sup>
NP, Magazine	49 (13.5)	260 (71.4)	55 (15.1)	364 (100.0)	24.128*
Radio, T.V	37 (14.2)	192 (73.6)	32 (12.2)	261 (100.0)	
Teacher	35 (10.6)	239 (72.2)	57 (17.2)	331 (100.0)	
Friends	8 (38.1)	13 (61.9)	0 (0.0)	21 (100.0)	
Parents	9 (27.3)	20 (60.6)	4 (12.1)	33 (100.0)	
Total	148 (13.8)	771 (71.8)	154 (14.4)	1073 (100.0)	

\*p<0.01

NP : Newspaper

보건교육 내용 중에 교육하도록 지시하거나 규제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되므로 앞으로 음주에 대한 구체적인 학교보건 프로그램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5)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음주 여부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음주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고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 및 친구의 음주여부, 알콜 유해성에 관한 지식도, 건강관련행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Table 12.**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predictor variables on drinking

variables	Odd Ratio	CI 95%	P-Value
Health status	1.597	1.170-2.179	p<0.01
Balanced diet	0.445	0.295-0.673	p<0.001
Father's drinking	0.446	0.291-0.683	p<0.001
Sister's drinking	0.521	0.318-0.852	p<0.01
Boy friend's drinking	0.454	0.285-0.725	p<0.001
Smoking	0.497	0.323-0.765	p<0.01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 변수는 건강상태, 식사의 균형성, 아버지의 음주, 여자형제의 음주, 남자친구의 음주, 흡연의 6개 변수로 자신의 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균형식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아버지, 여자형제, 남자친구가 음주를 하는 사람일수록, 흡연을 할수록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여대생들의 음주실태와 알콜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 및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1995년 5월 22일에서 6월 18일까지 1개 여자대학생 1,0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자 1,073명중 음주자는 85.6%인 919명으로 이중 148명(13.8%)이 상습음주자, 771명(71.8%)이 비상습음주자였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음주율이 가장 높았고 1학년, 4학년, 2학년의 순이었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의 순이었으며 계열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음주자의 최초음주시기는 중학교 시절이 14.8%,

고등학교 시절이 30.2%, 재수생시절이 4.7%, 대학시절이 49.4%였으며, 음주하게된 동기는 45.4%가 사교상의 이유를 들었고, 다음이 호기심(12.6%), 스트레스 해소(5.5%)의 순이었다. 음주횟수는 1주에 1회가 3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달에 2~3회(32.6%), 1주에 2회 이상(15.7%), 1달에 1회 이하(8.4%)의 순이었다. 음주시 동반자로는 여자친구가 3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선후배(33.0%), 남자친구(13.9%), 가족(3.3%)의 순이었다.

3. 가장 선호하는 술은 맥주(62.2%)였으며, 소주(25.6%), 양주(1.4%), 막걸리(0.2%)의 순이었다. 또한 만취 횟수는 주 1회 이상이 1.5%, 주 1회-월 2회가 9.2%, 년 4회-11회가 5.4%, 년 4회 이하가 29.6%로 45.7%의 학생이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는 학생일수록( $p<0.01$ ), 편식을 하는 학생일수록( $p<0.001$ ), 흡연을 하는 학생일수록( $p<0.001$ ) 음주율이 높게 나타났다.

5. 알콜의 유해성에 관한 지식이 높을수록 음주율이 낮았으며( $p<0.01$ ), 지식습득 경로는 신문,잡지(33.9%), 라디오·TV(24.3%) 등의 매스컴을 통한 지식 습득이 전체의 58.1%로 반수 이상이었는데 반해 학교를 통한 지식 습득은 경우 30.8%에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의 부재를 알 수 있었다.

6.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건강상태, 식사의 균형성, 아버지의 음주, 여자형제의 음주, 남자친구의 음주, 흡연이 음주에 유의한 관련인자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음주에 관한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정작 지식은 매스컴을 통해서 습득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학교를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음주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아울러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의 시행을 제언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1. 권이혁, 최신보건학, 신평출판사, 1985.
2. 구보경, 정준모, 이혜성, 알코올성 간질환자의 음주실태 및 영양섭취실태, 한국영양학회지, 30(1), 48-60, 1997.
3. 국세청, 국세 통계 연보, 국세청, 1992.
4. 길은미, 일부 남자고등학생의 약물남용에 관한 지식 및

- 태도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5. 김광기, 알코올 문제의 사회적 의존에 대한 사고, 한국보건의과학회지, 12(2), 146-161, 1995.
6. 김미현, 우리나라 일부 중년층 남성의 음주에 따른 건강상태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7. 김선환, 송제화, 박국태, 백금현, 김진용, 유재상, 안승운, 정상인 및 당뇨병환자에서의 혈청 HDL Cholesterol에 관한 연구, 대한내과학회지, 25(6), 614, 1982.
8. 김숙경, 청소년의 약물 사용과 비행 실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9. 김윤호, 박성수, 석성익, 남상학, 이동후, 손의석, HDL Cholesterol과 허혈성 심질환의 발생위험요인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대한내과학회지, 24(2), 117, 1981.
10. 남중락, 감신, 박재용, 한창현, 하영애, 대구시 일부 남자고등학생의 약물 남용 실태와 관련 요인, 대한예방의학회지, 29(3), 451-482, 1996.
11. 남철현, 혈중 알콜농도에 따른 신체반응 속도 및 변화 연구, 대한예방의학회지, 25(2), 141-147, 1992.
12. 민병근, 최상진, 이길홍, 한국청소년의 의식 구조와 행동 양식 A37-A39, 서울중앙대학교 영신 아카데미 연구원 한국 청소년문제 연구소, 1978.
13. 박두병, 학생 청소년의 음주 양상과 공격성과의 상호관계,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4.
14. 박정일, 홍윤철, 이승한, 한국 성인 남자에 있어서 알콜 섭취와 혈중지질농도와의 관계, 대한예방의학회지, 25(1), 44-52, 1992.
15. 송건용, 음주와 건강생활, 보건주보 제 934호 보건사회부, 1993.
16. 유형심, 청소년의 우울 성향이 음주 실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7. 이근철, 이길홍, 민병근, 청소년 음주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경정신의학, 26(2), 334-348, 1987.
18. 이길홍, 이수일, 김종녕, 한국인 여성 습관성 음주자에 관한 임상적 연구, 한국의과학, 5(12), 524-537, 1973.
19. 이길홍, 권혜진, 여성 알콜중독자의 치료 및 간호 중재, 한국의과학, 19(4), 331-337, 1987.
20. 이명선,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건강습관의 관련요인분석,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2(2), 48-61, 1995.
21. 이명주, 한국 청소년의 약물 남용 예방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석사논문, 1992.
22. 이병철, 김연자, 이고봉, 이영란, 최상모, 가족요인의 차이에 따른 대학생의 음주양상, 가정의, 12(10), 51-59, 1991

23. 이선희, 김화영, 음주습관이 증상류층 중년남성의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양학회지, 24(1), 58-65, 1991.
24. 이원재, 음주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3(2), 97-114, 1996.
25. 정규철, 지역사회보건, 수문사, 1986.
26. 진희숙, 청소년 흡연, 음주 및 약물 남용 실태와 요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1994.
27. 하은희, 임현슬, 위자형, 곽정옥, 철강제조업 생산직 남성 근로자의 건강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예방의학회지, 29(1), 113-131, 1996.
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신보건의 현황과 정책과제, 1994.
29.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ed2.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C., 1968.
30. Dai W. S., LaPorte R. E., Hom D. L., Kuller L. H., D'Antonio J. A., Gutai J. P., Wozniczak M. and Wohlfahrt B.: Alcohol consumption and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concentration among alcoholics. *Am. J. Epidemiol* 122(4), 620, 1985.
31. Gordon T.: drinking and mortality. *Am J Epidemiol* 126(2), 263, 1987.
32. Harvard J.: Druken drinking among the young. *Br Med J* 293, 1986.
33. Jacqueson, A., Richard, J. L., Ducimetiere, P., Warnet, J.M. and Claude, J.R.: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nd alcohol consumption in a French male population. *Atherosclerosis* 48(2), 131, 1983.
34. Oleckno, W. A. and Blacconiere, M. J.: A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of smoking status and health related attitudes and behaviors. *Am J Prev Med* 6(6), 323-329, 1990.
35. Power, J. S.: 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to diagnosis early alcoholism in a general practice. *South Med J* 77(7), 852, 1984.
36. Revicki, D., Sobal, J. and DeForge, B.: Smoking status and the practice of other unhealthy behaviors. *Fam-Med*. 23(5), 361-364, 1991.
37. Roquers, F.D.: Alcohol and adolescence. *Pediatr Clin North Am* 34(2), 289, 1987.
38. Sherin, K.: Screening for alcoholism. *Am Fam Physician*, 1791, 1982.
39. Yates, W.R.: Behavioral complications of alcoholism during childhood and outcome in adulthood :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Br J Psychiatry* 149, 584, 1987.